**마0415 Note**

**인용문 : 사0901**

원어 “카바드”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각 영역본의 뜻이 다릅니다,

사0901. 그럼에도 어둑컴컴함(무아프:덮힌,어두운,어두컴컴함,비탄,흐림)이, 처음에 그분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볍게 괴롭히시고, 그후에 바닷길가에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민족들의 갈릴리에서 그녀를 더 비통하게 괴롭히셨던 때에, 그녀의 고난(무짜크:좁음,고난,고통,좁혀지다) 가운데에 있었던 그러한 것으로는 되지 않느니라, (n)그러나 고통 가운데에 있던 그녀에게 더 이상의 어둑컴컴함이 없을 것이니라. 초기의 때들에는 그분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치욕으로써 다루셨으나, 나중에는 바닷길가에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방인들의 갈릴리에서 그분께서 그것을 영화롭게 만드시느니라.

(v)그럼에도 고뇌 중에 있던 자들에게 더 이상의 어둑컴컴함이 없을 것이니라, 과거에는 그분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낮추셨으나, 미래에는 그분께서 바닷길가에서, 요단강을 따라서, 이방인들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라.

(pr) [평화의 군주의 탄생과 통치] 그러나 고통 가운데에 있던 그녀에게 더 이상의 어둑컴컴함이 없을 것이니라. (이는 심판과 함께 구원의 약속이 옴이라) 초기의 때들에는 그분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치욕으로써 다루셨으나, 나중에는 (메시야의 나타남에 의해서) 바닷길가에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방인들의 갈릴리에서 그분께서 그들을 존귀받게 만드실 것이니라,